

## [가정축제 Gift 1] “사랑, 그 행복한 훈련”

장경철 목사 / 2003 / 페이지 수: 3

###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강의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제 소원을 먼저 이야기 합니다. 제 소원은 제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는 사람이 모두 잘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물론, 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소원의 앞부분입니다. 후반부가 제게는 더 중요합니다. 제 인생의 진짜 소원은 저를 만나는 분들이 다 큰 복을 받아 제가 그분들의 덕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청년 때부터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된 성격적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결핍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라는 말씀을 따라 제 인생의 소원을 정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어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사야 5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 모인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어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순장님들, 한 가정 한 가정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순원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법칙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따라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게 위해서 나보다 먼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오해

#### 1. 사랑은 대상과 매력의 문제다

저는 오늘 사랑의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을 대상과 매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랑에 있어 대상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술을 하는 어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니다. 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더라도 연습을 해야 좋은 모델을 만나서 좋은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모델을 만나면 그림 실력은 저절로 생길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이런 자세로 사랑에 접근합니다. 자기는 사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대상과 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훈련과 연습의 문제입니다.

## 2. 낭만적인 사랑만 사랑이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전 과정을 배우려 하지 않고 최초의 낭만적인 순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은 원리는 언제 어느 때나 저를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사랑의 원리는 제일 좋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대답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자란 인간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원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완벽한 인간이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도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좋게 봅니다. 심지어 공부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낭만적인 순간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하면 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해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영화, 드라마만 봐서 좋고 행복한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되면 사실은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집안 이야기를 하는 등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사랑을 배워야 할 텐데, 성급하게 결혼을 포기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로 이혼율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없이는 못살 것 같다’라는 것을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증거라기보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얼마나 비참하고 공허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 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은 둘이서도 살지 못합니다. 결혼은 그런 이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결정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사귀다가 다툼 때 다툼을 극복할 화해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거나 결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한때의 낭만적 기분이 아니라 화해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가정일수록 싸움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행복한 가정일수록 잔 싸움이 많답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싸움의 횟수보다 한 번 더 화해의 사건이 꼭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화해의 사건이 있기 바랍니다.

### 3.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것일 뿐,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좋은 것을 좋아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좋아하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좋은 사람과 하는 것이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상대방의 좋은 면을 먼저 보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 능력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과 나와서 관계만 나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나와서 현재 관계만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본 것을 토대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리지만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의 실상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을 것을 알지만 좋은 면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더 좋은 반응, 좋은 결과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을 불러서 가정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고, 허물보다 상대방의 좋은 면을 먼저 보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간들을 불러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연약한 인간을 부르시고 먼저 믿은 사람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허물을 덮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사실, 사랑은 어렵습니다. 미국 속담에 '익숙함은 소홀함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가까이 지내면서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